

# 근대 日本製新漢字語 유입을 통한 동북아해역의 지식교류 연구\*

공 미 희\*\*

本稿は近代日本語と韓国語との語彙交流現況に対する先行研究の分析の上に、開港後一番先に日本に正式に派遣された外交使節団が帰国後に報告した見聞録『日東記遊』をもとに近代日本製新漢字語について分析したものである。

分析方法としては漢字語で構成された『日東記遊』計4巻についてまず日本語の漢字を抜粋した。そして抜粋された漢字をもとに、『日本国語大辞典』及び『明治のことば辞典』を基に、近代以降、用例だけが収録された日本製新漢字語に対する可否を分析した。その結果1巻(62個)、2巻(60個)、3巻(62個)、4巻(25個)が収録されたことを確認した。しかし、日本側の辞書のみを判断根拠として、日本製新漢字語と断定しては困るため、同じ用語が前近代朝鮮、あるいはその以前時期から使用されている場合も確認する必要があるため、韓国古典総合DBを利用して改めて交差検討を行った。その結果、近代以後使用されていたのは1巻(26個)、2巻(17個)、3巻(13個)、4巻(4個)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

また、『日東記遊』に記録されている日本製新漢字語を機能的に分類してみると、近代化に関連した日本製新漢字語が記録されていることを確認した。このような語彙的な接触による知識交流によって、金綺秀は見聞過程で日本人から文化および近代文明を体験したと思われ、更にこれは朝鮮の近代化に影響を及ぼしたのであろう。

キーワード：近代、東北アジア海域、知識交流、日本製新漢字語、近代化  
(근대, 동북아해역, 지식교류, 일본제신한자어, 근대화)

## 1. 들어가기

한국, 중국, 일본은 한자문화권에 속한 나라로서 오래 전부터 한일 모두 중국의 한자문화를 많이 수용해왔다. 근대이전에는 중국의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학국플러스사업단 연구교수, kongmihe@pknu.ac.kr

문화가 한국 및 일본에 전파되었으나, 근대 이후는 일본이 한국 및 중국에 앞서 서양문화 및 문명을 접하므로 인해 서양서적에 대한 번역작업이 활성화된다. 그 당시 일본에 새롭게 유입된 문화 및 문물에 대한 번역 및 기록을 위한 어휘는 일본인이 고안한 일본제신한자어로서 방법에 따라 사용되었다. 일본인이 생각해낸 일본식 신한자어는 한자구조를 이용해 서양어를 번역, 일본인이 중국고전에 기록된 어휘로 서양어를 번역한 것, 일본인이 독자적으로 한자를 만든 것 등 3가지 방법으로 일본제신한자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다.

근대 이후 한국어에 유입된 일본어 어휘를 살펴보면 한자어가 많으며 이것은 양뿐만이 아니라 조어법에 있어서도 한국어에 영향을 주었다. 개항기 일본에 파견된 지식인은 일본인과의 접촉으로 이문화 경험과 아울러 지식을 상호 이식하게 되고 또한, 이런 지식인간의 교류는 그들의 사상과 사유방식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북아해역 지식네트워크의 형성에 일익을 담당해왔다. 따라서 근대 한국어로 유입된 일본제신한자어에 대한 어휘조사는 한일 양국에서의 지식교류에 대한 양상 및 특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근대 한국과 일본의 어휘접촉에 따른 지식교류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개항 이후 가장 먼저 일본에 정식으로 파견된 외교사절단의 대표인 김기수가 귀국 후 보고한 견문록인 『日東記游』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고 부분적인 분석에 그쳤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日東記游』 4권 전체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일본제신한자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지식교류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간에 어떤 문화 및 문물교류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것이 근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한자어로 구성된 『日東記游』 총 4권에 대해서 먼저 일본한자어를 발췌한다. 그리고 발췌된 일본한자어를 바탕으로 일본제신한자어 여부를 『日本國語大辭典』<sup>1)</sup> 및 『明治のことば辭典』<sup>2)</sup>

1) 北原保雄(2003) 『日本國語大辭典』[第2版] 小学館、Japan Knowledge Personal, <https://japanknowledge.com/personal/> 참조

2) 惣郷正明・飛田良文(1986) 『明治のことば辭典』東京堂出版、pp.3-609.

을 근거로 해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각종 고전원문과 조선왕조실록 등이 데이터베이스화된 한국고전종합DB<sup>3)</sup>를 근거로 발췌된 일본제신한자어가 전근대 조선, 혹은 그 이전 시기부터 사용되었는지 분석한다.

## 2. 선행연구 분석

제1차수신사 김기수의 『日東記游』에 대한 일본제신한자어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개항이후 한국과 일본이 어휘접촉에 따른 지식교류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어떤 언어가 다른 나라로 유입되는 경우 전달하는 매개체가 있으며 또한 유입경로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자문화권의 어휘교류나 교류실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것은 어휘의 역사적 연구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먼저, 양 언어 간의 매개로서 외교사절단에 의한 보고서와 유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적 및 신문 등에 기록된 일본제신한자어의 유입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李漢燮(1985)은 유길준이 쓴 서유견문(西遊見聞)을 조사해서 19세기 말 이후 일한의 어휘교류에 대해서 분석했다. 서유견문에 쓰인 일본어는 290어로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저서인 『西洋事情』의 번역 부분에서 나오는 예는 116어이고 유길준 자신의 저술부분에서 나온 예는 174어라고 설명했다. 이 중에는 機關車, 電信機, 野戰砲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물건을 나타내는 어휘(69어)보다는 芸術, 政體, 社會

3) 김기수의 경우 전통적으로 한학(漢學)에 충실했던 인물이며, 그리고 그가 『日東記游』내에서 구사한 것은 기본적으로 한문이다. 따라서 일본 측 사전만을 판단 근거로 삼아서 신조어라고 단정해서는 곤란하므로 같은 용어가 전근대 조선, 혹은 그 이전 시기부터 사용된 경우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교차 검토를 실시했음. 한국고전종합DB에는 고전번역서,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고전원문, 한국문집총간, 해제, 경서성독, 서지정보, 각주정보, 편목색인, 시소러스, 이체자가 해당되었으며, 본고에서는 이하 한국고전종합DB로 표기함.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가 많아 한국어로의 번역 및 교체가 어려워서 이것을 유길준이 이미 이해하고 있던 일본어로 나타내었음을 설명했다.

李漢燮(1998)은 박영효가 쓴 『建白書』를 대상으로 일본어와 한국어가 본격적인 접촉이나 교류를 시작한 19세기 말 양언어의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建白書』에 유입된 일본어는 총 71개<sup>4)</sup>의 일본 한자어로서, 한자어의 유입처를 중국어에서 일본어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박영효의 『建白書』는 근대 한국어의 어휘성립을 생각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기술했다.

李漢燮(2003)은 19세기 말 한·일 양 언어 접촉의 주된 주체를 외교사절, 일본 망명자, 일본에의 유학생이라는 3개의 그룹으로 분류<sup>5)</sup>해서 근대 일본 한자어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에 유입되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日東記遊』에 수록된 근대 일본제신한자어는 「人力車, 蒸氣船, 汽車」 예문 3개 제시에 불과했으며 또한, 신한자어 출자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李漢燮(2004a)은 19세기 말 한일의 어휘교류에 있어서, 신문발간을 위해 초빙된 井上角五郎가 한성순보(1호~36호), 한성주보(1~3)에서 근대 일본어한자어를 색출해 분류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李漢燮(2006)은 대한제국 『官報』에 「汽車, 工業, 工場, 社会, 人力車, 建築, 理学, 企業, 自主, 電話, 統計, 美術, 曜日」 등 문명개화와 관련된 근대일본어가 다수 출현했음을 보고했다. 이들 중 특히 「電話」와 「曜日」 이름은 중국식 용어로부터 일본식 용어로 바뀌어 가는 당시의 어휘 사정을 잘 반영했음을 기술했다.

宋 敏(1988)은 수신사들의 기록류에 나타나는 신조문명어휘를 정리함으로써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들 한자어가 국어에 수용되는 초기적 과정의 일단을 살피고 있다. 김기수는 주로 신문명을 나타내는 어휘경험을 하였다면, 이현영은 신문화를 나타내는 어휘경험을

4) 후쿠자와 저작의 인용 부분에 나오는 어는 24개, 후쿠자와 저작과 직접관계가 없는 부분에 나오는 말이 25개, 학문장르는 총 9개, 『文明論之概略』에서 총 5개, 외 총 8개임.

5) ①외교사절 기록으로서 김기수의 『日東記遊』, 이현영의 『日槎集略』, 박영효의 『使和記略』 ②망명자의 기록 ③일본 유학 경험자의 기록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기수의 『日東記游』에 수록된 일본제 신한자어 「蒸氣船, 汽車, 新聞紙, 人力車, 写真, 電線·電信, 西洋式 時間指稱法」 예문 7개에 대해서 広田栄太郎(1969)의 어휘 변천사에 대한 설명을 참조로 해서 제시했으며 또한, 신한자어 중에는 일본식 신조문명어휘도 있으나 전통적 어휘에 새로운 의미가 부가되어 만들어진 한자도 있다는 것을 설명 및 예로서 제시했다.<sup>6)</sup> 그러나 신한자어 출자어에 대한 근거자료를 역시 제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일부분의 분석에 지나지 않았다.

張元哉(2003)는 메이지 이후 일본어와 한국어의 한자어 형성과정을 어휘교류와 관련시켰으며, 조사 자료로서 尙書新聞(조선일보의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을 선택해 한일의 공통한어와 비공통한어의 변화를 파악해 공통한어가 늘어나는 모습을 고찰했다.

白南德(2013)은 동경에서 한국인 일본유학생이 간행한 잡지 『大韓留學生會學報』(1907)<sup>7)</sup>를 자료로, 선행연구 및 사전류를 사용해 출처 및 용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 메이지 신한어의 343어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白南德(2015)은 19세기 말 조선말기 정부에 의해 파견된 한국인 일본유학생에 의해 간행된 출판물 『친목회회보』(1896-1898) 「만국사보」에 나타난 일본한자어의 유입에 대하여 고찰했다. 조사대상어 1,320어 가운데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알게 된 1,118어를 제외한 202어를 『한어대사전』과 『일본국어대사전』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자어의 소재를 규명한 결과 53어가 일본한자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설명했다.

白南德(2016)은 최남선이 남긴 유학 작품에 출현하는 일본한자어

6) 宋 敏의 『日東記游』1권~4권까지의 분석에는 원문에 없는 한자도 있었으며(琉璃窓), 신한자어라고 기술(地方官, 会社, 教場, 機關, 機輪, 船長, 馬車, 艦長, 器械, 議事堂, 議官, 議長, 議事, 會議, 握手, 中將, 軍醫, 大佐, 地球, 自立, 外交, 斷髮, 自由, 巡警, 健康, 監督員, 火柴, 學問, 公使, 貨幣, 獨立)했지만, 한국고전종합DB(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고려사절요, 한국문집 등)로 검색한 결과 전 근대 역사기록에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했음.

7) 이 잡지의 본문기사를 호별로 보면 1호는 「文苑、雜纂、學海、彙報、會報」, 2호는 「演壇、學海、文苑、彙報、會報」, 3호는 「演壇、學海、史伝、文苑、雜纂、彙報、會録」임.

의 규명을 위해 선정된 한자어는 총 1,074어이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361어가 중복해서 나타난 것을 확인했고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일본한자어를 대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두 번째는 전문분야별 번역서적에 있어서 일본한자어 유입 연구로서, 金敬鎬(2004) 「韓國の近代医学書における医学用語について」를 들 수 있다.

金敬鎬(2004)는 일본어계 차용어의 특징을 5가지로 분류<sup>8)</sup>했으며 서양의학 관계 서적 중 가장 먼저 일본에서 간행된 『實用解剖學』을 번역한 『解剖學卷一(1906)』에 나타난 의학용어를 채택하여 일본어와의 관련성과 그 영향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어휘사(語彙史)에 관한 연구로서는, 일본에서 번역된 어휘가 한국에 유입된 경우로서 한국에서의 어휘사(語彙史)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文慶喆(2002)은 신조어로는 「化學, 自由, 銀行, 社會, 哲學」 등이 있고 재생언어로는 「經濟, 大學, 文學, 形而上學」 등을 들 수 있다고 기술했다. 「經濟」는 중국에서 「經世濟民」의 정치적 개념이었으나 economy의 번역어로 자리 잡았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 지금은 정치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幾何學(Geometry) 처럼, 번역어 전부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근대 중국에서 만들어져 일본에 건너온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지연(2012)은 일본 한자어의 수용연구의 일환으로 「大統領」을 통하여 일본 한자어의 성립과 정착에 대하여 고찰했다. 한국에서의 「大統領」은 1881년 『日僣集略』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실록, 교과서, 사전, 신문류, 관보 등에 걸쳐 출현되었다고 기술했다.

李漢燮(2013)은 근대 한국어 코퍼스를 이용하여 근대 동아시아의 어휘교류, 전파의 문제, 근대 한국어의 새로운 단어와 신개념의 성

8) ① 文語가 아니라 口語와 俗語에 수많은 일본어계 차용어가 사용된다. ② 전문 용어(학술 용어), 특수 분야의 용어로는 일본어계 차용어가 매우 많다. ③ 和語系 한자어에는 한국 전통적인 한자조어법과 다른 한자표기어가 있다. ④ 混種語 중에는 일본어 요소가 많이 들어 있다. ⑤ 근대에 새롭게 차용된 역어가 많이 나타난다.

립 및 정착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民主」는 중국에서 번역된 개념이며 「共和」는 일본에서 성립한 단어이지만, 한국은 서양의 개념을 중국과 일본 각각의 번역을 통해 거의 같은 시기에 받아들였다. 「生産」은 중국 유래의 개념이며 근대이후 신 개념으로서의 일본어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서술했다.

세 번째는 일본제 한자어의 실태에 대해서 사전류에 있어서의 어휘연구를 들 수 있다.

李漢燮(1993)은 일본제 한자어의 실태에 대해서 『日本語教育基本語彙』(1978)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제 한자어를 조사했다. 여기에는 786어의 일본제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에 현대한국어와 어형(語形)이 일치하고 있는 언어는 「印刷」, 「引上」, 「運轉」 등 687어라고 설명했다. 일본제 한자어의 유입방법으로는 「階段」처럼, 일본의 한자어 형태와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 읽기만 한국어글자 음으로 음독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宋 敏(1989)은 1890년대를 대상으로 신문명어휘의 성립과정을 개별어휘사적 방법과 종합어휘사적 방법으로 분류해서 분석했으며 그 결과, 이 시기에 이미 상당량의 신문명어휘가 국어에 수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어휘사적 방법으로, 大統領이라는 일본식 번역어가 국어에 정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고, 종합어휘사적 방법으로는, 일본어 학습서인 李風雲·境益太郎의 『單語連語日話朝雋』(1895)과 Gale, J.S.의 『韓英辭典』(1897)에 나타나는 신문명어휘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이 시기에 이미 일본식 신문명어로서의 번역어, 신조어가 적지 않게 국어에 정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기술했다.<sup>9)</sup>

李 晶(2002)은 일본에서 들어온 한자어라고 해도, 중국과 한국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영향도 차이가 있다고 서술했으며, 중국어와 한국어 각각에 수용된 「和製漢語」의 양상과 함께 중국어와 일

9) 학습서인 『單語連語日話朝雋』과 『韓英辭典』에 나타나는 일부 한자어휘의 의미를 조사한 결과, 학습서에 나타나는 어휘 수에는 한정이 있었으며, 실제로 당시에 이미 널리 통용되던 신문명어휘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韓英辭典』에서 신문명어휘들은 당시의 새로운 문물제도를 잘 대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政治, 經濟, 社会, 教育, 學術, 制度, 天文, 地理, 新式文物 등에 해당되었다.

본어가 한국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근거자료로서 4개의 사전 『漢語外來語辭典』 『漢朝義同音近詞語對照手冊』 『日本語教育基本語彙』 『朝鮮語漢字語辭典』으로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휘를 비교검토 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어와 한국어의 어휘체계에 대한 연구이다.

張元哉(2000)는 근대 한일어휘교류의 사정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에 일본제 한어가 들어옴에 의해서 근대에 있어서 한일 異形·異義였던 말이 同形·同義語로 변화한 양상에 대해서 고찰했다. 「社会」 「社長」 「分析」 「文明」 「理学」<sup>10)</sup> 등은 일본에서 중국고전의 의미로 사용된 말로 근대 이후 일본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가한 단어이며 일본제한어를 받아들인 한국어에 있어서도 같다. 또한 한일 異形·異義였던 「曜日の名」 「發明」 「發行·出發」의 경우가 同形·同義語로 된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sup>11)</sup>

金光林(2005)은 근현대의 중국어와 한국어에서의 일본어의 영향에 대해 보다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특히 근대 일본에서 생성된 한자어의 기능에 대해 규명하고자 했다. 한국어가 문법의 구조, 어휘조어법이 일본어와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중국인이 사용에 위화감을 느끼는 한자어도 조선인에게는 거의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었다고 서술하였다.

熊谷明泰(2014)는 개화기 이후 조선어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어로부터의 언어간섭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어휘간섭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개화기인 1870년대부터 근대 일본어 어휘야말로 한국어 어휘체계를 근대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이 외에 널리 구문, 콜러케이션, 다양한 관용표현 등 광범위하게 미치는 측면에서도 일본어로부터의 축어역, 번역차용을 매개로 하여 진전되었다고 강조했다.

10) 「理学」은 『明治のこゝろ辞典』(1986)에 의하면, 원래 宋学·朱子学을 가리키지만, 막말에서 영어 philosophy의 번역어가 되어 곧 physics의 번역어가 되었음. 오늘날은 「理学部」 「理学博士」 등과 같이 복합어로 사용되어 자연과학의 의미임.

11) 한국의 요일 이름은 일본제 한어가 들어가기 이전에 중국제 한어인 「禮拜~」와 「主日」을 사용하다가 일본제 한어유입으로 일본제 한어로 바뀜. 출발의 의미로서 한국에는 일본제 한자어 「出發」이 들어가기 전에 「發行」 「發程」이 있었다. 일본은 에도말기에 「發程」 예를 볼 수 있고, 「發行」은 일본제 한자어인 issue, publish의 의미를 받아들인 사례가 『独』의 5월 16일에 적혀져 있다.

이상으로 개항 이후 일본어와 한국어와의 어휘접촉에 따른 지식 교류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 번역된 어휘가 한국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어휘사(語彙史)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개항 이후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에 의해서 보고된 보고서 및 유학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적 및 신문 등에 기록된 일본제신한자어 분석을, 그 당시 신문명어휘에 해당하는 일부분의 어휘만을 발췌해서 서술한 부분 또한 적지 않았다.

특히 김기수의 『日東記遊』에 대한 분석으로, 宋 敏과 李漢燮의 분석이 있었지만, 일본제신한자어 분석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전 등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日東記遊』 전체에 대해 체계적으로 일본제신한자어를 추출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개항 이후 가장 먼저 일본에 정식으로 파견된 외교사절단의 대표인 김기수가 귀국 후 보고한 견문록인 『日東記遊』를 바탕으로 근대 일본제신한자어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 3. 『日東記遊』의 일본제신한자어 분석

『日東記遊』는 1876년 2월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 정부의 조선에 대한 사절파견요청으로, 1876년 양력 5월 22일~6월 28일까지 1차 수신사로 방문한 김기수가 일본의 고위관료들과 접촉해 정사 및 신문화와 신문물에 대해 상호 담화를 나누고 이문화에 관한 체험 내용을 1877년 2월에 황해도 상산(象山), 즉 곡산군수로 있을 때 작성한 견문록이다.

『日東記遊』는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기수가 도쿄에서 20일간 머무르면서 일본인의 문명개화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sup>12)</sup>

『日東記遊』 제1권에는 일본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이 사회(事會)·차견(差遣)·수술(隨率)·행구(行具)·상략(商略)·별리(別離)·음

12) 김기수 저·이재호 역(1989) 『日東記遊 국역 해행총재10』 민족문화추진회(편), 민족문화문고, pp.343-519, pp.91-202.

청(陰晴)·혈숙(歇宿)·승선(乘船)·정박(停泊)·유관(留館)·행례(行禮) 등 12항목으로 정리되어 있다. 『日東記游』 제2, 3권에서는 일본에서 여러 인물들과 교류하고 문물을 견문한 내용을 완상(玩賞)·결식(結識)·연음(燕飲)·문답(問答)·궁실(宮室)·성곽(城郭)·인물(人物)·속상(俗尚)·정법(政法)·규조(規條)·학술(學術)·기예(技芸)·물산(物山) 등 13항목으로 분류하여 상세히 정리해 놓고 있다. 『日東記游』 4권은 귀국하여 별단을 올리기까지의 내용으로 문사(文事)·창수시(唱酬詩)·귀기(歸期)·환조(還朝) 등 4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한자어로 구성된 『日東記游』 총 4권(페이지 91~202)에 대해서 먼저 일본한자어를 발췌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본제신한자어 여부를 『日本國語大辭典』 및 『明治のことば辭典』을 근거로 분석한다. 그러나 일본 측 사전만을 판단 근거로 삼아 신한자어라고 단정해서는 곤란하므로 같은 용어가 전근대 조선, 혹은 그 이전 시기부터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국고전종합DB를 이용하여 재차 교차 검토를 실시한다.

먼저, 『日東記游』 제1권에 대한 분석으로, 원문내용은 pp.91~113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본한자어를 발췌한 결과 아래와 같이 총 204개 어휘가 해당되었다.

<『日東記游』 제1권 : 원문 pp.91~113, 일본한자어 204개>  
 感想, 官人, 工学寮, 構造, 檢査, 牽制, 公然, 軍官, 婦女, 歸路, 金, 南門, 鹿角, 大水, 大洋, 大雨, 大風, 銅, 万里, 目的, 物品, 父子, 白色, 百尺, 別離, 使命, 書記, 石炭, 船, 船上, 船底, 船窓, 修好, 信義, 雨晴, 雨具, 女, 倭人, 銀, 耳, 以来, 以上, 誘惑, 飴, 日本, 酒, 前期, 政府, 朝廷, 造幣局, 中国, 差遣, 冊子, 妻, 天下, 熊, 孝子, 歡喜, 行具, 行装, 胸, 涙, 嗚咽, 平生, 陰晴, 行人, 始終, 小雨, 中庭, 馬車, 便利, 海軍省, 今年, 朝日, 撤去, 先生, 乘船, 一夜, 夜行, 小舟, 下船, 地方官, 指揮, 前進, 延遼館, 夜宿, 外務省, 博物院, 陸軍省, 工部省, 兵學寮, 太学, 開成学校, 女子師範学校, 告別, 上船, 以前, 一泊, 夜行, 由来, 壬辰, 一宿, 路程, 祭文, 翌月, 鐵路, 大船, 行船, 速度, 沈水, 臨水, 割物, 無風, 順風, 上層, 下層, 過半, 浸水, 必須, 石炭, 炭, 不足, 雨水,

輪船, 半月形, 往来, 汽笛, 大砲, 船頭, 艦長, 停泊, 水面, 棧橋, 密林, 市民, 密柑, 枇杷, 水面, 人物, 停泊, 地名, 翌日, 眼前, 器物, 船長, 洋人, 日本船, 護送官, 出入, 動作, 島主, 館, 窓, 花瓶, 貯水, 洗淨, 四輪, 琉璃, 左右, 上下, 車中, 前後, 人力車, 車兩, 外務卿, 日記, 写真機, 鏡面, 要請, 守門, 一切, 恣意, 火輪車, 馬軍, 特命, 道路, 喫煙, 有言, 洋服, 帽子, 制度, 衣服, 削髮, 衣裳, 頭髮, 斷髮, 首飾, 婦人, 上衣, 下袴, 紅黃, 綠色, 首飾, 元老院, 機關, 甲板, 灯明台, 沈着, 煙筒, 機輪, 子午盤, 双馬車, 鐵路関, 浮木標

다음은 발췌한 일본한자어 204개 어휘를 바탕으로 『日本国語大辞典』 및 『明治のことは辞典』을 근거로 근대이후 용례만 수록된 일본제신한자어에 대한 여부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62개가 해당되었다.

<『日東記游』 제1권 : 『日本国語大辞典』 『明治のことは辞典』 분석결과 일본제신한자어 62개>

工学寮, 人力車, 火輪車, 車兩, 四輪, 外務卿, 写真機, 檢査, 船底, 輪船, 煙筒, 修好, 誘惑, 前期, 造幣局, 差遣, 馬車, 海軍省, 外務省, 陸軍省, 工部省, 兵学寮, 博物院, 元老院, 撤去, 上船, 下船, 汽笛, 艦長, 停泊, 船長, 甲板, 前進, 灯明台, 延遼館, 開成学校, 女子師範学校, 一泊, 翌月, 臨水, 無風, 下層, 浸水, 半月形, 護送官, 島主, 貯水, 鏡面, 要請, 馬軍, 特命, 喫煙, 洋服, 首飾, 沈着, 感想, 牽制, 鹿角, 子午盤, 双馬車, 鐵路関, 浮木標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일본 측 사전만을 판단 근거로 삼아 신한자어라고 단정해서는 곤란하므로 같은 용어가 전근대 조선, 혹은 그 이전 시기부터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교차 검토를 실시했다. 즉, 한국고전종합DB에서 위의 62개 신한자어를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이 26개의 신한자어가 근대이후에 수록된 것을 확인했다.

<『日東記游』 제1권 : 한국고전종합DB 검색결과 근대 이후 수록된 일본제신한자어 26개>

工學寮, 人力車, 火輪車, 外務卿, 寫真機, 造幣局, 海軍省, 外務省, 陸軍省, 工部省, 鐵路, 兵學寮, 博物院, 元老院, 汽笛, 甲板, 燈明台, 延遼館, 開成學校, 女子師範學校, 喫煙, 洋服, 子午盤, 雙馬車, 鐵路閘, 浮木標

이처럼, 일본어사전에 수록된 신한자어라 할지라도 전근대 조선 및 그 이전 시기부터 사용된 한자어는 한중일 3국이 같이 사용한 한자어로서 중국고전의 어휘에 새로운 의미가 부가되어 일본어사전에 신한자어로서 수록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日東記游』 제2권~4권까지의 분석결과로, 분석방법은 제1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했다.

<『日東記游』 제2권 : 원문 pp.115~146, 일본한자어 229개>

兩國, 山川, 風景, 出沒, 黃色, 女子, 異常, 男女, 舟, 草木, 路面, 一時, 停車, 以下, 諸官, 皇上, 朝鮮, 古物, 瓦, 樽, 石, 眞珠, 珊瑚, 天之, 所生, 所產, 動植, 死人, 骸骨, 陸軍卿, 騎兵, 一番, 海岸, 一面, 手旗, 右指, 不動, 電線, 製造, 兵器, 農器, 各樣, 器械, 古今, 書籍, 壁掛, 議事, 議事堂, 二品, 親王, 坐處, 議長, 椅子, 平民, 太政大臣, 美人, 長身, 一流人, 外務, 面白, 軍醫, 海軍, 護送官, 秀才, 始終, 停泊, 法卿, 儒生, 文字, 大審院, 判事, 海軍大佐, 秘書官, 工部, 摂理, 書記官, 文部, 料理, 外國, 足跡, 幕府, 兩氏, 皆, 家, 酒食, 議官, 工部卿, 陸軍, 遠遼館, 西洋藥, 菓子, 餅, 製作, 西洋, 打毬, 天皇, 父母, 原本, 通信, 一卷, 當時, 皇帝, 島, 命酒, 一回, 紅白, 入口, 飯, 魚肉, 酒類, 葡萄酒, 琉球酒, 日本酒, 梨, 入口, 訪問, 椅子, 大海, 拜見, 休養, 幾日, 可能, 幾月, 遊覽, 大可, 心理, 接見, 特有, 十里, 拜見, 明日, 國法, 貴國, 午後, 入京, 接見, 感激, 殿上, 言語, 國法, 通信, 近年, 各部, 各省, 各國, 所見, 所聞, 衣服, 上衣, 下裳, 人心, 器具, 始祖, 衣服, 五百年, 利器, 一新, 感謝, 今日, 急務, 終日, 無才, 大臣, 大名, 一任放縱, 露國, 兵器, 無知, 感謝, 警戒, 婦女, 苦心, 發行, 日時, 電信, 石炭, 計算, 昨日, 多少, 石炭, 行李, 文部省, 元老院, 議長, 親王, 閣下, 大小, 貴國, 學則, 我國, 朱子, 父子, 兄

弟, 夫婦, 親切, 上官, 大臣, 諸臣, 明記, 婦女, 光景, 婦女, 一日, 離散, 二日, 元來, 親戚, 外國人, 海上, 異船, 禁止, 天皇, 自立, 相関, 終始, 講修, 辭命, 客室, 火輪, 電信, 電線, 機構, 法制長官, 開拓長官, 司法卿, 法制官, 判事, 文學寮, 外交

<『日東記游』 제2권 : 『日本國語大辭典』 『明治のことば辭典』 분석결과 일본제신한자어 60개>

陸軍, 異常, 鐵路, 路面, 停車, 陸軍卿, 海軍省, 火輪船, 蒸氣船, 異船, 客室, 海岸, 電線, 電信, 器械, 書籍, 議事堂, 議長, 外務, 軍醫, 海軍, 文字, 大審院, 海軍大佐, 秘書官, 文部, 足跡, 議官, 工部卿, 火輪, 電信機, 電信線, 機械, 機構, 文部省, 學則, 外國人, 西洋藥, 標旗, 手旗, 壁掛, 原本, 酒類, 日本酒, 休養, 可能, 特有, 各部, 各省, 所聞, 親王, 相関, 講修, 辭命, 法制長官, 開拓長官, 司法卿, 法制官, 書記官, 文學寮

<『日東記游』 제2권 : 한국고전종합DB 검색결과 근대 이후 수록된 일본제신한자어 17개>

陸軍卿, 蒸氣船, 電線, 電信, 大審院, 海軍大佐, 秘書官, 文部省, 電信機, 電信線, 西洋藥, 法制長官, 開拓長官, 司法卿, 法制官, 書記官, 文學寮

<『日東記游』 제3권 : 원문 pp.147~172, 일본한자어 368개>

宮室, 家屋, 公私, 貴賤, 大同, 小異, 木片, 山水, 魚鳥, 洋瓦, 一頭, 村野, 屋中, 不用, 瓦屋, 白黑, 中空, 流入, 植木, 木下, 城郭, 城下, 外城, 無門, 中間, 不破, 不壞, 橋梁, 橫長, 木橋, 懸橋, 皇宮, 上空, 小石, 排水, 掃除, 天然, 造成, 灯火, 習慣, 千人, 氏族, 文章, 千里, 婚姻, 娼妓, 少年, 妓女, 公卿, 大夫, 經驗, 無數, 吞氣, 風俗, 熊野, 日光, 工篆, 儒者, 儒家, 神堂, 神仏, 國文, 漢字, 農書, 兵書, 種樹, 茶飯, 何人, 學校, 所謂, 英語, 國語, 師範, 大道, 神, 公家, 成婚, 王公, 宰相, 人車, 一人, 步行, 時間, 觀念, 相違, 宴會, 明示, 條約, 節食, 節用, 富國, 本國, 新聞紙, 四方, 潔癖, 飲食, 忌避, 凡事, 秘密, 性愛, 常事, 事物, 牛馬, 凡人, 牛肉, 不變, 左邊, 山上, 首座, 弘法, 僧徒, 公子, 閨秀, 大書, 特書, 大字, 大家, 徒步, 事業, 磁器, 筋力, 政法, 政治, 制度, 閔白, 建國, 撰政, 政令, 先祖, 春秋, 斷, 西人, 以後, 聖人, 古語, 政務,

人生, 世襲, 封建, 姓, 族, 本姓, 官制, 洋制, 公服, 私服, 一方, 一字, 提灯, 職務, 規則, 時刻, 舟車, 兵農, 火災, 操作, 火, 教育院, 幼兒, 貧人, 成就, 產業, 立法, 有罪, 死罪, 罪, 国家, 利益, 君臣, 人民, 車, 稅, 無人, 公事, 私行, 万国公法, 金錢, 紙幣, 三家, 三軍, 下官, 階級, 嚴重, 供給, 大輔, 留置, 汽艦, 使節, 艦中, 人國, 主人, 使者, 書信, 陳書, 本館, 官員, 數名, 到達, 港, 信使, 敬具, 公館, 代理, 書記生, 條例, 第一, 一路, 航行, 事務, 本省, 接待, 旅館, 所在, 炊事, 自我, 費用, 軍醫, 兵庫, 碇泊, 上陸, 旅舍, 準備, 汽車, 等級, 指示, 注意, 吸煙, 嚴禁, 号令, 乘客, 所帶, 行李, 監督, 收藏, 爆発, 腐敗, 性質, 特殊, 朝夕, 小籠, 會食, 飲酒, 違反, 罰目, 小路, 乘車, 夜中, 無提灯, 乘馬, 車馬, 妨害, 牛馬, 沐浴, 污水, 大小便, 生業, 宿人, 爭論, 自由, 驚愕, 汚穢, 通行, 田園, 放尿, 便所, 通行者, 人家, 顏面, 嘲弄, 三尺, 馬, 路傍, 花木, 植物, 失火, 日夜, 巡警, 各自, 火氣, 接遇, 誘導, 施療, 貴客, 一時, 感冒, 溫熱, 不潔, 健康, 入室, 唐突, 任意, 夜間, 市街, 本意, 木牌, 失路, 懇切, 巡視, 黑色, 服, 共同便所, 白粉, 言行, 四書, 四庫全書, 禁令, 講習, 學問, 典型, 印刷, 書法, 一國, 近日, 一種, 名筆, 拙劣, 画家, 細密, 精緻, 金碧, 花鳥, 古木, 手法, 精工, 水墨, 快適, 所長, 無法, 不精, 黄金, 白銀, 劍, 米, 布, 紙, 墨, 筆, 雪花, 水田, 農夫, 蝦夷, 錦, 旧主, 濃厚, 木材, 絕壁, 白銅, 精巧, 鏡, 眼鏡, 綿布, 茶, 北海, 明太, 活澆, 竹, 千金, 黄鳥, 蠟燭, 油, 功利, 外国語学校, 万国公法, 專權大臣, 火藥, 石炭油, 專權公使

<『日東記游』 제3권 : 『日本国語大辞典』『明治のことば辞典』 분석결과 일본제신한자어 62개 >

印刷, 新聞紙, 汽車, 教育院, 人車, 外国語学校, 立法, 利益, 警察官, 紙幣, 供給, 汽艦, 艦中, 航行, 乘客, 功利, 橫長, 木橋, 排水, 造成, 成婚, 外城, 時間, 明示, 中空, 潔癖, 性愛, 特書, 洋制, 私服, 提灯, 操作, 流入, 無人, 私行, 陳書, 公館, 代理, 書記生, 事務, 本省, 炊事, 吸煙, 監督, 爆発, 特殊, 無提灯, 便所, 通行者, 施療, 溫熱, 健康, 共同便所, 典型, 木片, 快適, 濃厚, 眼鏡, 万国公法, 專權大臣, 石炭油, 專權公使

<『日東記游』 제3권 : 한국고전종합DB 검색결과 근대 이후 수록된 일본제신한자어 13개>

新聞紙, 汽車, 敎育院, 外國語學校, 汽艦, 乘客, 書記生, 無提燈, 万国公法, 專權大臣, 警察官, 石炭油, 專權公使

<『日東記游』 제4권 : 원문 pp.173~202, 일본한자어 148개>

往復, 閣下, 貴國, 大臣, 航海, 快活, 特派, 不備, 虎皮, 豹皮, 白木綿, 色筆, 星霜, 派遣, 斡旋, 帝陛下, 福祉, 陶器, 乖離, 本年, 交際, 幸福, 開兌, 煙管, 目錄, 漆器, 紅白, 麻布, 滿足, 特別, 漂流, 數日, 救助, 領事官, 送達, 照會, 別紙, 航海者, 危難, 愛護, 救護, 感激, 救出, 海洋, 公使館, 公使, 漂泊, 保護, 死者, 赤子, 欲望, 漢文, 理事官, 揭載, 約束, 決定, 禮曹判書, 書簡, 造幣, 貨幣, 鑄造, 媒妁, 目的, 獨立, 比較, 通知, 出張, 貴下, 積載, 需用, 造幣寮, 交際者, 有無, 長短, 應用, 行路, 風土, 議論, 親切, 風雨, 百度, 和詩, 同一視, 後人, 天地, 唱和, 平安, 風采, 國勢, 草野, 天意, 觀光, 日月, 見學, 女史, 寄贈, 急務, 國事, 家事, 古人, 衣冠, 名士, 憂國, 書生, 君子, 序文, 著作, 等身, 年代, 海山, 海水, 偉力, 散步, 利用, 厚生, 料理, 茫然, 書狀, 施設, 日擊, 水陸, 土山, 雲間, 木造, 自然, 外堂, 前面, 石垣, 勇斷, 學書, 習字, 天文, 地理, 軍器, 機器, 都市, 發展, 兵力, 車上, 物價, 造化, 觀美, 風裁, 大勢, 彼方, 忠信, 道德, 無事

<『日東記游』 제4권 : 『日本國語大辭典』『明治のことば辭典』 분석결과 일본제신한자어 25개>

機器, 領事官, 送達, 照會, 施設, 特派, 派遣, 造幣, 造幣寮, 乖離, 特別, 救助, 欲望, 理事官, 揭載, 交際者, 同一視, 寄贈, 偉力, 學書, 習字, 都市, 發展, 觀美, 厚待

<『日東記游』 제4권 : 한국고전종합DB 검색결과 근대 이후 수록된 일본제신한자어 4개>

特派, 造幣, 造幣寮, 領事官

이상과 같이, 『日東記游』 제1권~4권까지의 일본제신한자어에 대한 분석을 표로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日東記游』의 일본제신한자어 분석

종류	페이지	일본 한자어	『日本国語大辞典』, 『明治のことば 辞典』분석결과	한국고전종합 DB 검색결과
1권	91~113	204개	62개	26개
2권	115~146	229개	60개	17개
3권	147~172	368개	62개	13개
4권	173~202	148개	25개	4개

다음은 『日東記游』 제1권~4권까지의 일본제신한자어에 대한 분석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며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능별 분류>**

- 軍事關係：海軍省, 陸軍省, 兵學寮, 陸軍卿, 海軍大佐
- 交通關係：汽笛, 人力車, 火輪車, 甲板, 鐵路, 蒸氣船, 乘客, 雙馬車, 汽車, 汽艦, 石炭油
- 通信關係：電線, 電信機, 電信線, 電信, 新聞紙
- 機械：子午盤
- 經濟關係：造幣, 造幣寮
- 教育關係：工學寮, 開成學校, 女子師範學校, 教育院, 外國語學校, 文學寮, 書記生
- 行政機關：外務省, 外務卿, 文部省, 警察官, 領事官, 工部省, 專權大臣
- 法律：元老院, 大審院, 法制長官, 開拓長官, 司法卿, 法制官, 書記官, 万国公法
- 制度：秘書官, 特派, 延遼館, 喫煙
- 官公署：博物院, 造幣局
- 品物：写真機, 燈明台, 無提燈, 西洋樂, 洋服

이상으로, 한자어로 구성된 『日東記游』 총 4권(페이지 91~202)을 분석한 결과, 일본제신한자어는 주로 군사, 교통, 통신, 기계, 선박,

기차, 전신, 조폐 등의 경제관련, 학교, 법률과 제도, 경찰관, 인쇄, 사회생활 관련, 관공서 및 신문물 등과 같은 근대화와 관련된 일본 제신한자어가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日東記游』 제2권 문답(問答)편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일본대신 등의 지식인들은 조선이 하루라도 빨리 근대화해서 일본과 힘을 합쳐 청나라와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견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절단에게 주로 근대화된 문물을 견학하도록 일정에 넣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인적 및 지식교류의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日東記游』는 자연스럽게 신문화 및 신문물에 대한 어휘가 수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어휘들을 일본어사전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신한자어라 할지라도 전근대 조선 및 그 이전 시기부터 사용된 한자어는 한중일 3국이 같이 사용한 한자어로서 중국고전의 어휘에 새로운 의미가 부가되어 일본어사전에 신한자어로서 수록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일본제신한자어는 서론에서 기술했듯이 크게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구분 짓기는 어렵다는 것을 선행연구자들도 언급했으며 필자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 4. 결 론

본고는 근대 한국과 일본의 어휘접촉에 따른 지식교류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 위에, 개항 이후 가장 먼저 일본에 정식으로 파견된 외교사절단이 귀국 후 보고한 견문록인 김기수의 『日東記游』를 바탕으로 근대 일본제신한자어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다.

분석방법으로서는 한자어로 구성된 『日東記游』 총 4권에 대해서 먼저 일본한자어를 발췌했다. 그리고 발췌된 한자를 바탕으로 『日本国語大辞典』 및 『明治のことば辞典』을 근거로 근대 이후 용례만 수록된 일본제신한자어에 대한 여부를 조사 및 분석했다. 그 결과 1권(62개), 2권(60개), 3권(62개), 4권(25개)이 수록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본 측 사전만을 판단 근거로 삼아 신한자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문제가 있음으로, 같은 용어가 전근대 조선, 혹은 그 이전 시기부터 사용된 경우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고전종합DB를 이용하여 재차 교차 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1권(26개), 2권(17개), 3권(13개), 4권(4개)이 수록되어 있었다.

이처럼, 전근대 조선 및 그 이전 시기부터 사용된 한자어는 한중일 3국이 같이 사용한 한자어로서 중국고전의 어휘에 새로운 의미가 부가되어 일본어사전에 신한자어로서 수록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어휘사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日東記游』에 수록된 일본제신한자어를 기능적으로 분류해본 결과, 주로 군사, 교통, 통신, 기계, 선박, 기차, 전신, 조폐 등의 경제 관련, 학교, 법률과 제도, 경찰관, 인쇄, 사회생활 관련, 관공서 및 신문물 등과 같은 근대화와 관련된 일본제신한자어가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어휘적인 접촉을 통한 지식교류에 의해 김기수는 견문과정에서 일본인으로부터 문화 및 근대문명을 체험하였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이것은 조선의 근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근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金敬鎬(2004) 「韓國の近代医学書における医学用語について」 『第4回 漢字文化圏近代語研究会』 日本大阪関西大学, pp.249-258.
- 金光林(2005) 「近現代の中国語、韓国・朝鮮語における日本語の影響-日本の漢字語の移入を中心に-」 『新潟産業大学人文学部紀要』 第17号、新潟産業大学, pp.110-128.
- 김기수 저·이재호 역(1989) 『日東記游 국역 해행총재10』 민족문화추진회(편), 민족문화문고, pp.343-519, pp.91-202.
- 김지연(2012) 「일본 한자어의 수용과정으로 고찰한 大統領의 성립」 『언어정보』 15호, 언어정보연구소, pp.34-51.
- 文慶喆(2002) 「日本語・韓国語・中国語の漢語語彙について」 『総合政策論集』 第2卷 第1号、東北文化学園大学, pp.43-54.
- 白南德(2013) 「『大韓留学生会学报』에 出現する日本漢字語の研究-明治新漢語を中心に-」 『日本語文學』 第59輯, 한국일본어문학회, pp.135-151.
- \_\_\_\_\_ (2015) 「『親睦会会報』에 출현하는 일본한자어 연구-『万国事報』를 대상으로

- , 『日本語文学』第65輯, 한국일본어문학회, pp.17-33.
- \_\_\_\_\_(2016) 「최남선의 유학 작품에 출현하는 일본한자어의 제상」 『日本文化學報』第71輯, 한국일본문화학회, pp.149-163.
- 宋 敏(1988) 「日本修信使의 新文明語彙 接觸」 『語文學論叢』 國民大7, pp.51-65.
- \_\_\_\_\_(1989) 「開化期 新文明語彙의 成立過程」 『語文學論叢』 國民大8, pp.69-88.
- 李漢燮(1985) 「西遊見聞의 漢字語について—日本から入った語を中心に—」 『國語學』141集, 國語學會, pp.39-50.
- \_\_\_\_\_(1993) 「現代韓國語における日本製漢語」 『日本語學』12-8, 明治書院, pp.50-58.
- \_\_\_\_\_(1998) 「朴泳孝의 建白書に現れる日本漢語について」 『國語語彙史の研究』17, 國語語彙史研究會, pp.343-368.
- \_\_\_\_\_(2003) 「近代における日韓兩語の接觸と受容について」 『國語學』第54卷 3号, 日本語學會, pp.71-84.
- \_\_\_\_\_(2004a) 「近代以降の日韓語彙交流:日本人が直接伝えた日本の漢語」 『日本研究』第3輯, 高大日本研究會, pp.78-91.
- \_\_\_\_\_(2004b) 「19世紀末以後の日韓兩語の接觸と交流について; 李憲永の『日槎集略』に出ている語を中心に」 『アジアにおける異文化交流』 明治書院, pp.66-76.
- \_\_\_\_\_(2006) 「근대 국어 어휘와 중국어 일본어 어휘와의 관련성; 19세기말 자료를 중심으로」 『日本近代學研究』第13輯, 韓國日本近代學會, pp.5-17.
- \_\_\_\_\_(2013) 「近代韓國語 코바스에現れた新概念의 樣相と定着過程」 『東아시아における知的交流—キー・コンセプトの再検討—』44卷,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pp.89-100.
- 張元哉(2000) 「19世紀末の韓國語における日本製漢語—日韓同形漢詩の視点から—」 『日本語科學』8, 國立國語研究所, pp.35-49.
- \_\_\_\_\_(2003) 「現代日韓兩國語における漢語の形成と語彙交流」 『國語學』第54卷 3号, 國語學會, pp.85-97.
- 北原保雄(2003) 『日本國語大辭典』 [第2版] 小學館, Japan Knowledge Personal.  
<https://japanknowledge.com/personal/>
- 熊谷明泰(2014) 「朝鮮語의 近代化と日本語語彙」 『関西大學人権問題研究室紀要』67, 関西大學, pp. 1-122.
- 惣郷正明・飛田良文(1986) 『明治のことば辭典』 東京堂出版, pp.3-609.
- 李 晶(2002) 「日本語と中国語の韓國語に与える影響—二字「漢語」を中心に」 『留學生教育』7, 留學生教育學會, pp.83-102.

<Abstract>

## A Study on Knowledge Exchange in Northeast Asia Regions by Influx of Modern Newly Coined Words by Japanese

Kong, Mi-Hee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modern Japanese language based on Kim Ki-su's '日東記游,' a checklist that was reported by the first diplomatic mission to Japan after its opening.

As an analysis method, we first extracted Japanese characters for a total of four "日東記游" books composed of Chinese characters. Based on the excerpts of Chinese characters, we analyzed the Japanese-made Shinhan language, which contains only examples since modern times.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first volume (62), the second volume (60), the third volume (62), and the fourth volume (25) are included. However, the Japanese dictionary should not be used only as a basis for judgment, so it was necessary to check if the same term was used from the former Joseon Dynasty or earlier; we thus conducted another cross-review using the Korean classical DB. As a result, the results included the books 1 (26), 2 (17), 3 (13), and 4 (4).

As such, it is believed that the Chinese characters used in the Japanese dictionary are likely to be Chinese characters used by Korea, China and Japan, and that the words recorded in the Chinese classics may be in Japanese dictionaries, and further detailed analysis is needed.

And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Japanese-made words recorded in '日東記游' confirms that Japanese-made Shinhan words related to modernization are recorded. Through this lexicon contact, Kim Ki-su was able to learn from the Japanese the culture of Japan and its modern civilization in the field of visitors.

Key words : Modern time, Northeast Asian Sea Region, Knowledge exchange,  
Japanese-made language, Modernization

투 고 일 : 2019년 10월 14일  
심 사 일 : 2019년 10월 18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1월 9일